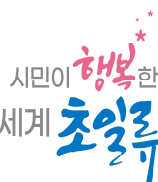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8월 24일(목) 총 7매		
담당 부서	산업입지과	담 당 자	• 산단개발팀장 • 담당자	유상철 임채선	☎440-4671 ☎440-467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기계산단 · 지방산단, 5년간 272억 투입해 재생사업 추진
-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선정, 남동-부평주안 국가산단에 이어 세 번째 -
- 기반시설 확충, 뿌리산업과 첨단사업 융복합, 문화산단 스마트산단으로 재생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2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근로자 편의시설,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2015년 선정)와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2020년 선정)에 이은 세 번째로, 일반산업단지 중에는 처음으로 선정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인천기계산업단지에는 183개 업체, 인천지방산업단지에는 578개 업체가 있으며, 두 곳에는 모두 9,5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 산업단지의 면적은 인천기계산단 113.6만㎡, 인천지방산업단지 35만㎡임.

그러나 두 곳의 산업단지 모두 1970년대에 조성돼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 그리고 산업단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일자리 문화공간 구현’이라는 비전과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정비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구조고도화 ▲문화산단 및 스마트산단으로 이미지 개선 등의 추진전략을 재생 사업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재정비를 위해 인천시는 2028년까지 총 272억 원(국비 136억 원, 시비 13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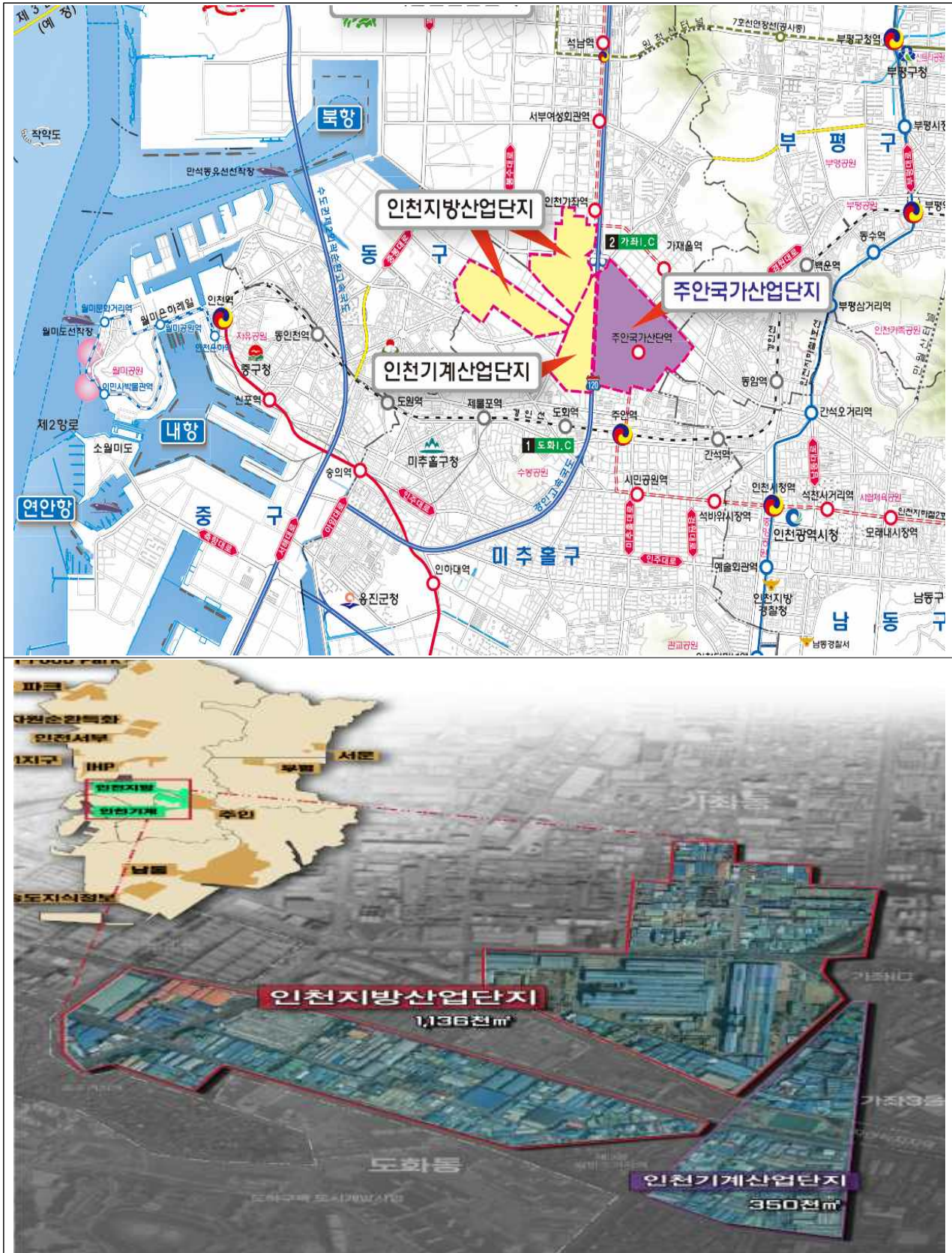
인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공모를 준비했다. 또 향후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시에도 관리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주도의 주차장 및 공원조성, 도로환경개선 등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해 재생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개발을 유도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일자리 문화공간’도 구현할 계획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단 이미지를 벗고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해 다시 한 번 인천 제조업이 도약해 산업단지의 중추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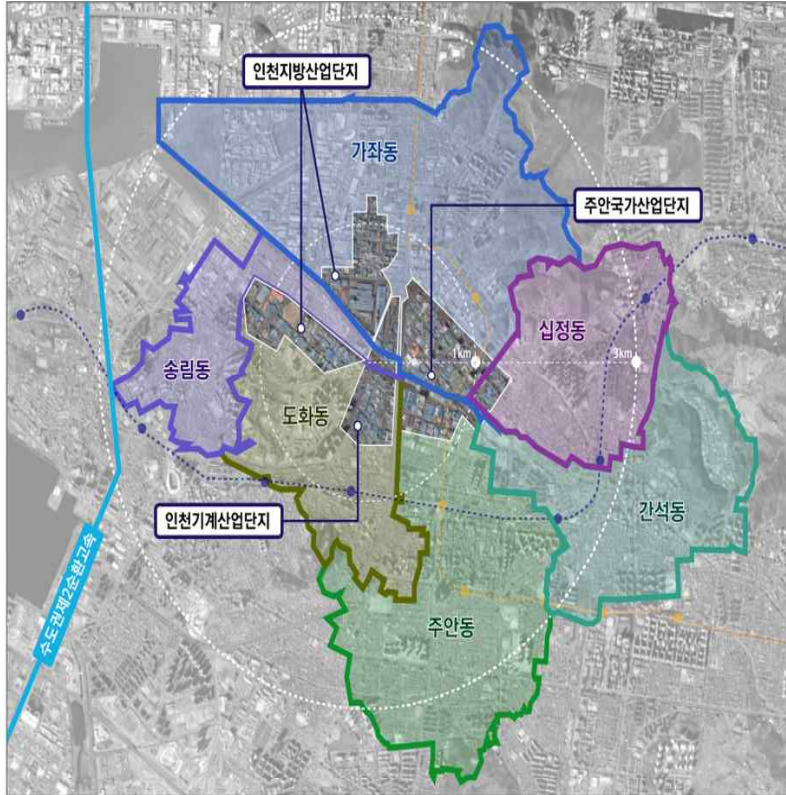
위치도



참고 2

산업단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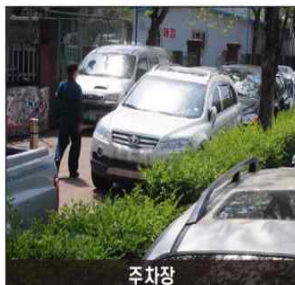
• 산업단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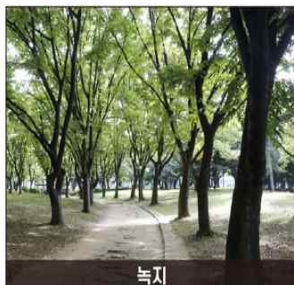
구분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위치	• 미추홀구 염전로 107 ~ 서구 백범로 789 일원	• 미추홀구 장고개로 98 ~ 서구 장고개로 118번길 5 일원
조성목적	• 도심지 공해업체의 집단이전으로 업종별 계열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고속도로 연변 폐염전 지대의 개발 활용 국내산업단지	• 기계공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리기관	• 인천도시공사	•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기간	• 1970. 3 ~ 1973. 12	• 1969. 9 ~ 1971. 1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물류시설 및 전력시설용도 건축물)	•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입주업체수 [23개(세월가동)]	• 583	• 179
면적 (㎡)	• 총면적 : 1,136,269 - 산업시설구역 : 1,001,046 - 지원시설구역 : 327 - 공공시설구역 : 134,896 - 녹지구역 : -	• 총면적 : 350,185 - 산업시설구역 : 292,964 - 지원시설구역 : - - 공공시설구역 : 57,221 - 녹지구역 : -

• 일반현황 조사 및 노후분석 [토지·건축물, 기반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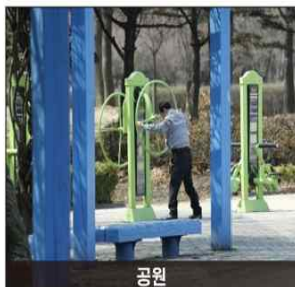
- 인천지방·기계 일반산업단지는 조성된지 5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로 도로유니나 녹지, 공원 비율 지표가 최소기준을 충족 못할뿐만 아니라 전국 노후산업 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확보 시급
- 또한 대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임에도 주차장 시설 부족
- 제조 기능 위주의 공장이 집적되어 있는 반면,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및 근로자의 복지 및 여가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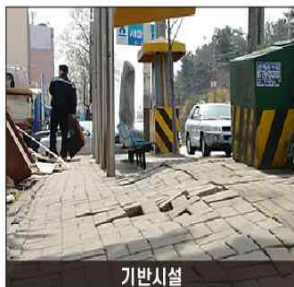
주차장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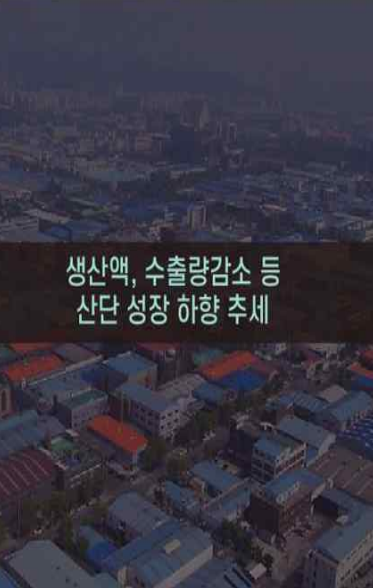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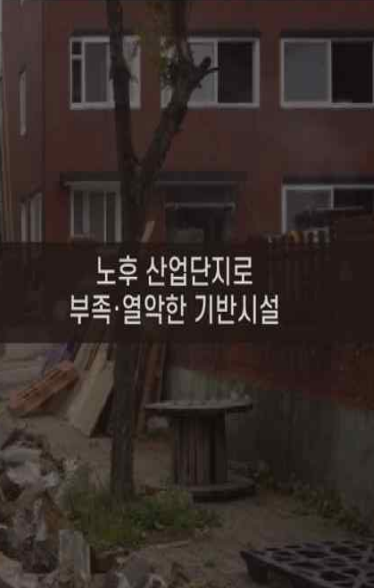
공원



기반시설

항목	인천지방	인천기계	최소기준	충족여부	비고
건축물 노후도(%)	14.5	30.4	-	-	일반산업 20년 이상 공장
기반시설 준공 노후도(년도)	40.0	42.0	-	-	일반산업 기반시설 준공 경과연수
도로율(%)	7.2	2.8	10%이상/ 8%이상	미충족	20m이상 도로율
주차장(%)	0.0	0.0	-	-	산단 내 주차장 면적 비율
소팔지화(%)	72.8	66.0	-	-	50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부지
지원시설용지 실태(%)	0.0	0.0	-	-	지원시설용지 면적비율
녹지 면적 실태	0.0	0.0	7.5%이상/ 5%이상	미충족	산단 내 녹지비율
공원 면적 실태	0.0	0.7	-	-	산단 내 공원비율
도심과의 거리 실태(m)	1.121	2.191	-	-	도심(시청)과의 거리
지가 수준(%)	64.1	27.9	-	-	주변 지역 지가 대비

* "노후산업 리모델링 종합계획" (14.2, 국토부 산업부) 연구보고서 참조

 <p>기존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재</p>	 <p>생산액, 수출량감소 등 산단 성장 하향 추세</p>	 <p>노후 산업단지로 부족·열악한 기반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단 내 편의점, 음식점 등 근로자를 위한 판매시설 용도 없음 2. 사회·문화·복지 등의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및 휴식 공간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 연간 생산액 및 수출액의 감소 추세 2. 입주업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 3. 산업단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시의 노후지역으로 전락하여 도시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 애로사항으로 산업단지 내 인프라 부족으로 개선 요구 2. 별도 주차시설이 없고 영세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산단 내 주차장 확충 지속적으로 요청 3.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충분한 지원시설 확충은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시설 정비와 유망업종 및 첨단산업 유치로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참고 3

재생사업 비전 및 전략



1. 추진배경

- 산업단지 지정 후 50년 이상 경과되어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노후 및 부족, 제조업 중심의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업종이 혼재하여 업종 집적화 및 업종간의 연계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 및 기술혁신 환경이 열악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으로 노후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 23.4.18.)
 - 부평·주안은 거점 산단, 지방·기계산단은 연계 산단으로 선정
- 지방·기계 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 확충 등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거점산단인 부평·주안 산단과 연계하여 산업재배치 및 업종 첨단화 계획 수립

2. 산단현황

(2023. 7. 7.기준)

구분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위 치	미추홀구 도화동, 서구 가좌동 일원	미추홀구 도화동, 서구 가좌동 일원
지정일	1973. 4.	1967. 11.
조성기간	1970. 3. ~ 1973. 12.	1969. 9. ~ 1971. 1.
면적(㎡)	1,136,269	350,185
입주업체(사)	578(6,939명)	183(2,494명)
관리기관	인천도시공사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 인천 지방·기계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은 1차 금속, 금속가공, 기계, 기계장비, 조립금속, 섬유, 전기전자 등의 제조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추진계획

□ 재생사업 개요

- 사업목적: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 개량으로 지역 활성화
- 사업위치: 인천 지방·기계 산업단지 일원
- 사업면적: 인천지방산단 1,136천㎡, 인천기계산단 350천㎡
- 사업기간: 2024.1.~2028.12.
- 사업비: 272억원(국비 136, 지방비 136)
- 시행자: 인천광역시
- 주요 사업내용: 기반시설 확충·정비
 - 주차장 조성 1개소
 - 공원 조성 1개소
 - 도로환경개선: 보도 정비, 쉼터 조성, 담장 철거 및 특화 등

□ 추진실적

- 2023. 5.22.: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 계획 알림(국토교통부→)
- 2023. 7.24.: 공모 신청(→국토교통부)
- 2023. 8.17.: 제안 발표 및 평가
- 2023. 8.23.: 공모 선정 결과 알림(국토교통부→)

□ 향후계획

- 2023. 하반기 : 예산 확보 및 사업 준비
- 2024. ~ 2025.: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6. ~ 2028.: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 추진

4. 기대효과

- 산단 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지원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여건 개선
-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증진시키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 가능